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공회를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5월 4일(일) 제1539호

가정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5월 10~11일 '온누리교회 가정의 달 행사' 개최 5월 4일 어린이주일, 17~18일 입양위탁주일, 교사주일

온누리교회가 올해부터 5월 둘째 주 주일에 '가정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5월 10일(토)과 11일(일)에 '가정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열린다. 이날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담당목사가 '가정'을 주제로 설교한다. 이날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70세 이상 성도들에게는 카네이션을 달아준다. 교

회 로비, 주차장, 이천만광장 등에는 셀프사진관과 포토존을 설치해서 가족사진을 찍는 이벤트를 한다. 가족사진을 찍고 나면 교역자가 가족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해준다. 온누리교회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도 설치한다.

5월 한 달 내내 풍성한 행사가 이어진다. 5월 4일(일)은 '어린이주일'이다. 서빙고, 양재, 도곡에서 바이킹,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등 차세대

를 위한 놀이시설을 운영한다. CGN에서는 '미션 1000 캠페인'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1천 원 이상 CGN 후원)을 한다. 사회선교본부 생명과환경팀에서는 '차세대 그린 캠페인'을 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 차세대들이 'Bye Bye 플라스틱'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교회 곳곳에 전시한다.

5월 18일(일)은 '교사주일'이다. 차세대 교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한

다. 5월 17일(토)과 18일(일)은 '입양위탁주일'이다. 사회선교본부 제이 흡사역팀(입양위탁커뮤니티)과 선한울타리사역팀(보육원 아동 결연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역)이 '입양위탁행사'를 개최한다. 입양위탁 문화 정착 및 보육원 아동 결연, 자립준비청년 멘토 사역을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SNS청년부와 여호수아청년부 예배에서는 입양 가족 간증을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 회복축제 '온전함'

2025 온누리 회복축제 '온전함'이 5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이어진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선교관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7만 원. 5월 4일(일)까지 사전 등록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 준다.

이번 회복축제에서는 14일 '마음 돌봄', 15일 '정신 치유', 16일 '영혼 회복'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3215-3532

/ 홍하영 기자

5월 3~4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지정 차량만 교회주차장 이용 가능

5월 3일(토)과 4일(일)을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5월 3일(토) 오전 8시부터 4일(일) 오후 4시까지 교회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캠퍼스는 상황에 맞게 진행).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에는 자가용은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 주변 아파트나 상가,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교회주차장은 거동이 불편한 성도,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36개월 이하 동반 자녀가 있는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차량은 주차장 입구에서 자녀 3명 탑승을 확인하고 입차할 수 있다. 5월 4일(일)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이촌역, 국립중앙박물관, 거북선 나루터,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 환승주차장을 오가는 셔틀을 운영한다.

2025 마리아행전 '평강의 복'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열린다. 6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오전 10시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된다(6월 12일 양재 사랑홀 및 캠퍼스 본당(서빙고 제외), 13일 양재 사랑홀). 올해 마리아행전 주제는 '평강의 복' (시 29:11)이다.

참가신청은 5월 10일부터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간식, 물 포함)이다. 6월 1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 준다.

문의: 02-3215-3667

/ 홍하영 기자

영종온누리교회 창립 2주년

영종온누리교회가 창립 2주년 '창립주일 감사예배 및 축하행사'를 5월 4일(일) 오후 2시 영종온누리교회 3층 백향목홀에서 개최한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말우물어린이축제'에서는 에어바운스 설치와 비눗방울 공연 등을 한다. 영종온누리교회는 2023년 5월 7일 '하늘을 향한 새로운 항해'를 비전으로 내걸고 국내 11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도육환 목사(영종온누리교회)는 "영종온누리교회가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지혜 기자

법조인맞춤전도집회 'Justice For You'

법조인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Justice For You'가 막 오른다. 6월 16일(월) 오후 6시 45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로비에 설치되는 홍보부스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에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교수, 외국변호사 등)인 초대대상자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참가신청 1차 마감은 5월 22일(목) 오후 5시이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는 "정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법조인들이 진정한 정의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변의 법조인들을 초대해달라"고 전했다.

문의: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저스티스포유'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가 7월 4일(금)과 5일(토) 막 오른다. The Way 관동위원회가 주최하고, 온누리교회 러브소나타팀과 대학청년부가 협찬한다.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전 4:9)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온누리교회 소속 청년들은 5월 11일(일)부터 이메일(2myo0@naver.com)이나 전화(02-3215-3759)로 신청하면 된다.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전쟁터입니다. 군사전쟁, 경제전쟁, 체제전쟁, 정치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더 근본적인 전쟁,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 세우는 전쟁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는 전쟁입니다. 전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한은 유배되어 있고, 주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로마 제국의 권력이 보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땅으로 쫓겨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계속 반역의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우주적인 전쟁

〈요한계시록〉 12장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표징이 나타납니다. 아이를 잉태해서 해산하는 한 여자와 그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는 큰 용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전해줍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한 여인과 그 생명을 죽이려는 용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 아이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졌고, 여자

는 광야로 피신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를 연습니다. 용은 먹이를 빼앗긴 셈입니다.

큰 용이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한 이유는 〈시편〉 2편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장차 자신을 무너뜨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쇠 지팡이로 부숴버릴 수 있는 분(시 2:8-9).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사단을 무너뜨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가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터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진멸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 뱀으로부터 발꿈치를 상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고난 받으신 일은 하나님과 사단 간의 전쟁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사단과 싸우는 군사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계 12:7-9).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용이 이제 사나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갑니다. 뱀이 자기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으나 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모든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용이 두 번째 먹이를 놓쳤습니다. 더는 공격할 대상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공격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 곧 메시아를 무너뜨리지 못한 용, 여자마저 무너뜨리지 못한 용이 여자의 후손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계 12:17).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린양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해서 악의 영혼이 제거될 때까지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사단과 싸우는 군사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양의 피로 순교함으로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계 12:11-12). 분을 품고 땅에 내려와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어린양의 피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들이 죽임당하는 것 같지만,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교를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순교자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양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거듭 패배를 경험한 용이 바닷가에 서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하 세계에서 도움을 끌어옵니다. 바다와 땅에서 각각 짐승을 불러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용을 도와주려고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은 모조품과 같습니다. 바다의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의 부위들을 합쳐서 만들어진 모습이고, 땅의 짐승은 참되신 어린양을 본떠 만든 가짜 어린양입니다. 여러분, 용과 두 짐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본떠서 가짜를 만듭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가짜를 만듭니다. 사단은 모조품입니다. 그 용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훔쳐 내는 것입니다. 바다의 짐승도 그리스도를 모방하기 위해 일곱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어린양에게 부여하신 것처럼, 용도 그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여한다고 나옵니다. 또 어린양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짐승도 치명상을 입어서 죽게 된 것 같지만 치료되어 온 땅이 감탄하며 그 짐승을 따르게 한다고 합니다. 어린양이 모든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이들을 따르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것처럼, 그 짐승도 성도들을 대적해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어느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린양처럼 두 뿔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이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대신해 권세를 행사하고,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처럼 모방하는 것입니다. 땅

에서 난 짐승도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서 사람들을 현혹해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성령님이 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치시는 사역을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이마에 짐승의 숫자 ‘666’ 표를 받게 합니다. 666이라는 수는 7이라는 완전수에서 하나씩 뺀 겁니다. 불완전하고, 사단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시대에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모든 세력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용과 두 짐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기 위해서 모방한 것입니다. 가짜를 만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권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만일 짐승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짐승과 심한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일을 거부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이었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와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 짐승의 세력과 같은 이들의 통치자를 숭배하는 일을 거부하면 곧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을 경배하든지 순교를 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문자적인 예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칼로 죽임당하는 상황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곧 이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믿음은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을 받아들이는 순교는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짐승들이 사용하는 지상의 무력과 힘을 가지고 대처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 두 짐승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에 저항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폭력이 아닌 순교로써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 소수의 힘없는 성도들이 어린양의 피로 순교함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항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항하라! 순교로써”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짐승의 세력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만나고 싶습니다 NGO ‘메디엑세스’ 김병순 대표

“종합적인 의료선교 플랫폼”

온누리교회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 출범

온누리교회 의료선교 역사가 깊다. 1985년, 온누리교회가 창립된 해부터 의료선교를 시작했으니 교회 역사와 어께를 나란히 한다.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은 40년 동안 국내외 아픈 이웃들을 찾아가 섬겼다. 특히 2006년 긴급재난 구호팀 ‘램프온(LAMP ON)’ 발족과 함께 의료봉사팀들이 ‘CMN(Christian Medical Network)’으로 통합되면서 체계적인 발전을 해왔다. 태풍, 쓰나미 등 국가적 재난 현장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의 의료 취약 지역에 청진기를 들고 달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이제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MediAccess)가 출범한다. 이는 온누리교회 40년 역사의 한 축이었던 의료선교를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내는 게 목적이다. 5월 24일(토) 오후 5시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린다.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 대표 김병순 장로에게 설립 필요성과 의미 등을 물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를 창립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필요성과 의미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메디엑세스’는 온누리교회가 오랜 시간 쌓은 의료선교를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세운 국제 의료 NGO입니다. 40여 년 이어온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램프온, CMN)의 경험과 노하우를 NGO라는 전문적인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하고자 설립했습니다. 의료선교의 지경을 확 넓히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크리스천 의료진 네트워크 ‘CMN’이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국내 농어촌 교회부터 전 세계 오지까지 찾아가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훌륭한 의료 전문가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CMN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뛰어난 의료선교팀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기존 의료사역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비공식적인 팀 단위의 방문으로도 의료사역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나라의 구호 물품(의약품, 장비 등) 통관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의료 활동을 하려면 그 나라 정부의 허가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팀 단위 사역으로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국제기관과 협력하거나 대규모 외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NGO라는 법적, 행정적 틀 안에 있어야 유리합니다. NGO는 국제



“NGO 메디엑세스는 의료선교 모든 부분 감당하는 ‘종합적인 의료선교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사회에서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역 대상 국가에 들어가기가 수월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는 데도 이점이 많습니다. 국제적,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온누리교회의 귀한 의료자원(인력, 경험, 네트워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를 설립한 이유입니다. 의료선교의 본질은 그대로 이어가되, NGO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더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폭넓은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의료자원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 책임감과 소명 또한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 창립의 중요한 동기입니다.”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의 활약이 벌써 기대됩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는 의료선교의 모든 부분을 감당하는 ‘종합적인 의료선교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단순한 치료나 구호 활동을 넘어서 선교지의 필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의 사역은 크게 네 가지 영역입니다.

첫째, 인력 지원입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 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 전문 인력을 의료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해외 병원이나 보건소에 파견할 것입니다. CMN에서 활동하는 의료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선교지의 필요에 맞는 의료 인력을 연결할 것입니다. 특

히 메디엑세스는 온누리교회 40년 의료선교 역사를 이어가고,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차세대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기대하고 환영합니다.

둘째, 물적 지원입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확보해서 공급할 것입니다. 국내 제약회사와 의료 기기 업체와 협력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킹스웨이 코리아(Kingsway Korea)’ 같은 의약품 지원 단체와도 계속 연합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 및 자문입니다. 현지 의료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병원 운영 시스템이나 보건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을 할 것입니다. 의과대학은 있지만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거나 최신 의술 교육이 필요한 선교지에 전문 인력을 파견해서 의료 수준을 높여주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스스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일을 돕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입니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현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의료선교의 효율을 높일 것입니다. 국내외 다른 NGO나 구호단체, 정부 기관과도 협력해서 더 큰 규모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는 의료선교의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감당할 것입니다.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현지인들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건강한 의료선교를 해낼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에는 이미 ‘더멋진세상’이라는 NGO가 있습니다. 메디엑세스와 차별점이 무

엇이고, 어떤 협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온누리교회 성도님이라면 ‘NGO 더멋진세상’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NGO 더멋진세상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더멋진세상이 주로 농촌 개발, 교육, 자립 지원 등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춘 NGO라면, 메디엑세스는 오롯이 의료 분야에만 집중하는 NGO입니다. NGO 더멋진세상에서도 일부 의료팀이 사역하지만, 의료는 그 특성상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기에 의료 분야 전반을 다루는 전문 의료 NGO가 필요했습니다.

NGO 메디엑세스와 더멋진세상은 성격이 다르지만, 온누리교회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합니다. 두 기관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온누리교회는 모든 사역팀이 협력하는 ‘융합선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도 NGO 더멋진세상, 2000선교본부, CGN 등 온누리교회 유관기관 및 사역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연합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 사역에 동참할 방법이 있습니까?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의 문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의료선교 현장에서는 의료진 말고도 필요한 손길이 정말 많습니다. 행정 업무, 통역, 식사 준비, 차량 운전, 현지 안내, 사진 및 영상 기록, 어린이사역, 미용, 마사지 등 비의료인 성도님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합니다.

참여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의 국내외 의료사역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전문가들이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입니다.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의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도록, 선교지에 파송하는 모든 인력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의료선교 확장을 위한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세워지고 운영됩니다. 의료인이든, 비의료인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국제 의료 NGO 메디엑세스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문의: 02-570-7110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

“돌아가시기 직전에 드린 영접 기도를 통해
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보다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에게 많이 나올 것 같다. ‘자신은 평생을 열심히 신앙 생활 하면서 그 결과로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평생을 한 번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고백한 영접 기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달렸던 강도 이야기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 그 강도의 고백을 인정하고 받아주셨다.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강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뿐더러 평생을 악한 일을 하며 살아왔다. 그런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도 구원해달라며 그분을 붙잡았다.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확신을 주

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아즈카라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기〉에서 5대 제사를 소개한다. 그 중에서 〈레위기〉 2장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곡식 제사 ‘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가마니 곡식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다. 많이 가져오라는 의미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모두 드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레 2:2).

전체 곡식을 내버려 두고 제사장이 한 움큼만 가져다가 제단에 바쳤다. 이때 한 움큼의 곡식을 성경에서 ‘기념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즈카라’라고 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가난한 자들은 한 가마니의 곡식을 가져왔지만, 실제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한 움큼뿐이다. 하나님은 그 적은 한

“나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임을
감사하며 고백해야 한다.”

리고 나면 그들이 먹을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당연히 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셨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단 순종함으로 전부 가져다 드렸다. 그렇게 드러진 곡식이 어떻게 될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 가운데서 모든 유향과 함께 고운 가루 한 줌과 올리브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기념물로 태워야 한다. 이

움큼을 받으시고, “너의 곡식 전부를 받았다”고 선언하고 계신다. 이처럼 아주 작은 헌신을 마치 전체를 드린 헌신으로 기억해주시는 게 ‘아즈카라의 원리’다.

아즈카라의 원리는 우리의 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에 만족할만한 성취나 기여가 있어서 그 결과적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고백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었다. 결과적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아즈카라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소하고, 속이기 위해 다가온다. 연약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며 완벽하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무엇인가? 아즈카라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완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드린 영접 기도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결코 행위나 수고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격이 될 수 없다. 처

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아즈카라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나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임을 감사하며 고백해야 한다.



최대홍 목사
(요셉청년부)



초등교사가 크리스천 선생님들께

교실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줍기도 하고 바쁘기도 했던 학년 초, 잘 보내셨나요? 4월에 학부모 상담도 있었다면 더 힘드셨을 거예요. 수업 이후 4~8분 정도 학부모님을 만나다 보면 체력적으로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날은 ‘내가 숨은 쉬고 있는 건가?’ 생각도 들고, 그래서 ‘휴~!’ 이렇게 일부러 숨을 쉬어봅니다.

저는 친척이 거의 없어서 학창 시절 아는 직업이라고는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 한 분의 파스함으로 인해 제 꿈이 시작되었고, 그 꿈은 절대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선생님이 된 것을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학교와 교사를 향해 갈수록 높은 도덕적, 교육적 수준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이 애쓰시다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병을 얻어 병가를 쓰거나 휴직을 하거나 갑자기 명예퇴직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저와 동갑인 선생님 한분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소식을 늦게 알고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퇴직까지 10년은 남았는데 왜 그만두시는 거예요? 작년에 힘든 일도 없었잖아요?”

그 선생님은 “지금 좋을 때 그만두고 싶어요. 무슨 일이 생겨서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요”라고 답했습니다. 너무 좋은 분인데 이 결정

을 하신 게 매우 아쉬웠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학교는 10년, 20년 전보다 교사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기대에 여러분도 많이 지쳐 있으시죠?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는 듯한 ‘스승의 날’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보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지쳐 있던 지난 3월 30일, 큐티 시간을 가지면서 아래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쳤을 때 성막에 기름을 붓고 성막과 그 모든 물품들과 제단과 그 모든 물품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그것들에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했습니다”(민 7:1).

그때 저는 출퇴근하면서 줄곧 교실을 정리하고 꾸밀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었습니다. ‘교실 뒤쪽에 애들이 편하게 쓸 여분의 이면지를 두고, 거울 위쪽에는 ‘사랑해’ 글자를 붙여야지. 그리고 몇 년은 된 것 같은 창문의 글라스데코는 깨끗이 떼어버리고, 또 ...’ 연일 휴대전화 달력에 할 일들을 빼곡히 적고는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교실에서 하는 일들은 성막을 세우고, 성물들에 기름을 붓는 일이야.’

그동안 성경을 몇 번 읽었지만, 이 구절이 이렇게 삶 속으로 쭉~욱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

니다. 복도 쪽 창문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건어버리고, 신문지를 구겨 유리 창문을 깨끗이 닦아서 교실 안이 환히 보이도록 했습니다. 뻑뻑해서 아이들이 열기 힘들어하는 교실 앞문과 뒷문은 시설 기사님께 부탁해서 롤러를 바꿔 ‘드르륵’ 소리가 나며 잘 열리도록 했습니다. 색깔이 바래 빨강에서 핑크가 된 태극기 액자도 새 걸로 바꿨고, 컴퓨터 모니터가 저와 아이들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대걸레에 물을 적시고 꼭 짜서 살균제를 섞어 교실 바닥을 닦고, 화원에 가서 노란색, 분홍색 꽃 화분을 사서 교실 창가에 두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이 반짝반짝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학생들에게 옛날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고, 쉬는 시간을 쪼개 학생들과 상담을 합니다. 수술을 앞둔 학부모님이나 불화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기 쓰기를 지도하면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격려의 말을 남깁니다. 점심 식사 전에는 한 명, 한 명 손등에 로션을 발라주며 매일 한 번 눈 맞춤과 대화를 합니다.

23명 아이의 담임이 된다는 것은 국어, 수학 같은 공부를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외의 것들에서 더 많은 역량이 필요합니다. 협동과 배려, 언어 습관, 관계 문제

해결 등 ...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하나님이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담당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도록’입니다. 이 땅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산다는 것은 가끔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실에서 나의 예배, 나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실에서 삶으로 예배드려요!

선생님 TIP!

1. 저는 부부 교사라서 ‘스승의 날’에 둘만의 기념을 합니다. 맛있는 외식을 하며 둘만의 교육 공감을 하곤 하

지요. 여러분도 마음이 잘 맞는 선생님과 ‘스승의 날’ 즐겁게 지내보세요.

2. 같은 학교에서 마음을 나눌 동료 선생님을 꼭 찾으세요. 그래야 공감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최민혜 교사
(부천온누리교회, 석천초등학교, 〈야누시 코르차크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닌 아름다운 길로 이끌기를〉 저자)

맛있는 말씀 해설

“...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삼상 1:11)

성경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지 않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문이나 대문을 닫을 때’ 표현한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나는 태의 문이 닫힌 것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 다만 열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에게 업신여김과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비참함을 느꼈을 뿐이다.

‘결핍’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므로 결핍에 대한 ‘주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하지만 스스로 결핍에 대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설 때만 회복되고, 바로 설 수 있으며,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믿음이 결핍되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사라지는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한나가 주변에 의해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그녀의 기도는 결핍이 채워지

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나에게는 결핍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때론 결핍이 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단은 결핍을 무질서하게 혼들어낸다. 그래서 결핍의 환경을 이길 힘이 필요하다. 결핍을 이길 힘은 바로 어린 양이 지켰던 십자가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결핍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변에서 놀림 받는 상황이 한나의 입을 마르게 하고, 무릎 꿇게 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불평하며 한탄하던 것들이 중지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보인다.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에만 집중하면 실수를 저지른다. 한나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수나 원하는 구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고통을 발견해 달라는 것’이었다.

한나는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을 깨닫는다. 한나에게도 아이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동시대의 하나님에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없음을 발견했다. “나만 아들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없구나!”를 발견하고 기도의 마지막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

한나는 사실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히브리어로 아들을 뜻하는 ‘벤’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씨’의 의미가 있는 ‘제라’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아들 대신 더 넓은 의미로 ‘씨’를 달라고 한 것이다. 즉, 이스라엘에 약속된 아들을 구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사단과 싸우는 영적으로 새로워진 아담의 후손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사단의 의도를 막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제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약속의 본문에서 여호와와의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메시아의 씨를 뜻한다.

한나는 복수와 자신의 비참함을 막기 위해 아들을 구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마음

을 헤아렸던 사람이었다. 한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들’이 필요했다. 제사장 엘리는 나이가 높고 구별 능력이 떨어졌다. 게다가 그의 아들들인 ‘홀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했다. 제사장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타락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유할 아들을 기다렸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의 단어가 바뀐다.

한나는 기도대로 아들을 얻게 된다. 그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성경에 기록한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 길이 답을 얻는 길이며, 살길임을 깨달을 것이다.



조동욱 목사
(양재B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약속과 멀어지는 혈기와 원망

5월 5일~5월 11일까지
<민수기> 19:11~21:35



묵상포인트 1: 부정함과 죄는 전염성이 있다. 하나님은 부정함을 개인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공동체 관점으로 보신다. 복잡한 정결 예식을 통해 하나님이 개인과 공동체의 정결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묵상하자.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에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와 한 공간에 있게 된 자는 7일 동안 부정해진다. 이때 붉은 암송아지 재를 넣은 물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사용된다. 정결한 자가 그에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을 뿌리면 일곱째 날에 정결해진다. 부정한 자가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묵상포인트 2: 출애굽 이후 40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이 신 광야 가데스에 이른다. 백성은 여전히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토해내며 모세를 원망한다. 운운하던 모세가 불순종과

혈기로 반응한 일과 그 결과에 대해 묵상하자.

▶이스라엘 자손이 신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미리암이 죽는다.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바위)에 명령해 물을 내게 하라고 하신다. 모세가 회중 앞에서 혈기를 드러내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친다. 물은 솟아 나왔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가데스에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낸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통과 요청을 완강히 거절하며 길을 막아서자 이스라엘이 돌아켜 다른 길로 행한다. 하나님 명령대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오른다.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는다.

묵상포인트 3: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한두 가지 힘겨운 일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다. 은혜를 폄하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그리고 진노하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마음에 대해 묵상하자.

▶호르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왕 아랏을 용기 있게 물리친다. 그러나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는 길이 힘들어지자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불 뱀(독사)을 보내시니 많은 백성이 죽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장대 위에 뿔(청동) 뱀을 매다니, 이를 쳐다보는 자는 살아난다. 이후 이스라엘은 여러 지역을 지나 모압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른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강한 대적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며 가나안 정복의 기반을 다진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한 사람의 죄와 부정함은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친다. 나의 내면과 외면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항상 의지하자. ▶광야 여정 막바지에 모세는 혈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 맡겨 주신 사역을 운운과 겸손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감사하기보다 불평을 일삼지는 않는가? 습관적인 원망이 습관적인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노력하자. ▶불 뱀(독사)에 물려 죽어 가는 자들이 장대에 매단 뿔(청동) 뱀을 보기만 해도 살아났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서 싸워야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의지해 담대히 행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송파A공동체를 위하여!

송파A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락방별로 시니어 순과 젊은 순이 은혜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순 재편이 평안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공동체 순장님들과 모든 리더십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순과 공동체를 인도하면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에 예정된 상주, 몽골 아웃리치에 많은 성도가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각 다락방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미안마 김대관, 조영숙 선교사, 캄보디아 손동현, 이수옥 선교사, 인도네시아 홍시안 선교사, 케냐와 탄자니아 신동준, 홍지연 선교사, 베트남 임성호, 함명자 선교사, 몽골 이광수, 더기 선교사, 일본 야마구치 한나 선교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정경희 권사의 폐암을 고쳐 주시고, 김은미 권사의 쇄골과 팔목 골절 수술 후 재활 및 회복을 도와주시며, 유장희 성도의 모친 윤정옥 성도의 대장암 수술 후 치료과정과 건강 회복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임해창 집사의 담도시술(4월) 후 온전히 체력이 돌아와 담낭제거수술(6월)도 잘 받고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송파A공동체 성도들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참가신청 5월 9일까지

CGN이 주최하는 행복한 가정 레이스 ‘2025 달려라풍당’ 후원 챌린지(이하 ‘달려라풍당’)가 5월 10일(토)부터 24일(토)까지 열린다. 참가신청은 5월 9일(금)까지 QR코드나 달려라풍당 홈페이지(runfondant.kr)에서 하면 된다.

2025 달려라풍당에는 걷기, 자전거, 러닝 등의 운동을 선택하고, 목표 거리를 설정한 다음 자율적으로 후원금을 약정해서 참여하면 된다. 거리 또는 걸음 수는 본인 스마트폰에 탑재된 앱으로 측정하면 된다. 측정 한 거리는 QR 코드로 접속해서 구글 폼에 등록하면 된다.

5월 10일(토)에는 ‘달려라풍당데이’ 오프닝 행사가 오전 10시 15분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예능인 김기리, 이정규, 김해선, 힙합 크루 하다쉬 뮤직 등이 게스트



2024 달려라풍당데이에서 참가자들이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로 출연한다. 이날 걷기 코스를 완주하는 참가자 전원에게 양순이 메달을 증정한다.

‘달려라풍당’은 가족, 공동체와 함께 운동하며 후원하는 챌린지다. 후

원금 전액 가정과 차세대를 위한 기독 OTT ‘풍당’ 콘텐츠 제작 및 허입에 사용된다.

문의: 02-796-9800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창립 15주년 기념 ‘더멋진 콘서트’ 개최

NGO 더멋진세상 창립 15주년을 맞아 후원자들을 위한 음악회 ‘더멋진 콘서트’를 개최한다. 5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열린다. ‘더멋진챔버’의 클래식 연주와 가스펠 보컬 밴드

‘크룩스’의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참가신청은 5월 16일까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나 QR코드로 하면 된다. 선착순 500명 모집한다.

문의: 070-4402-2796



이주민 사역 돕는 유튜브 채널

화성M센터, ‘Friendship of Asian People’ 운영

화성M센터가 한국 교회의 이주민 예배사역을 돕는 유튜브 채널 ‘Friendship of Asian People’을 운영하고 있다. 이 채널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외국어로 이주민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돕는다. 현재 캄보디아, 우즈벡, 키르기스, 타지, 이란, 몽골, 네팔 등 7개 국가 언어로 된 150여 개 찬양 영상이 올라와 있다. 선교지 언어 가사와 함께 한국어 가사, 한국어 발음 표기 자막을 제공해서 한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찬양하도록 제작했다.

3년 전 개설된 이 유튜브 채널이 벌써 열매 맺고 있다. 경북 밀양에서 한국인 성도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이주민 2~3명과 함께 이 채널을 틀어놓고 함께 찬양하다가 지금은 이주민 10여 명이 모이는 캄보디아 예배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언어의 찬양 영상을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다양한 외국어 예배가 세워지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일대일 양육자반 심화과정 특강

5월 11일과 18일 오후 8시 온라인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 심화과정 온라인 특강 ‘메이크업2’가 5월 11일(일)과 18일(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문자메시지나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5월 11일 ‘구원의 확신’, 18일 ‘하나님의 속성’ 과목을 노치형 목사가 강의한다.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을 수강 또는 수료한 성도가 대상이다.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 수료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심도 있는 일대일 제자양육 준비를 원하는 대외사역 양육자 재교육과 영성 점검이 목적이다.

문의: 010-3929-6793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CGN 다큐 영화 ‘무명’ 누리사랑 특별 시사회

김요성 목사, 누리사랑 가족, CGN 임직원 등 참석

CGN 다큐 영화 ‘무명’ 누리사랑 특별 시사회가 지난 4월 27일(일) 오후 1시에 서빙고온누리교회 신관 1층 사랑홀에서 열렸다. 김요성 목사(장애인사역본부장), 이강혁 목사(누리사랑 담당), 누리사랑 형제자매, CGN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요성 목사는 “영화관 이용에 불편한 누리사랑 형제자매를 위해 영화시사회를 열어 준 CGN에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강혁 목사는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을 기리며, 우리도 빛의 자

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무명은 CGN이 8년 만에 선보이는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다. 일제강점기 시절 고통받는 조선 민중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다 건너온 노리마츠 마사야스(乘松雅休, 1863~1921), 오다 나리지(織田櫓次, 1908~1980) 등 잊힌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배우 하정우가 내레이션했다. 오는 6월 25일부터 롯데시네마에서 관람할 수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5월 화요성령집회 ‘슬기로운 가정생활’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5월 화요성령집회가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주제로 막 오른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유튜브 채널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

5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6일 최성민 목사 ‘구원을 얻는 가정’(수 2:1~21), 13일 이서진 목사 ‘은혜로 회복된 가정’(창 45:1~15), 20일 최성민 목사 ‘질서를 따르는 가정’(엡 6:1~4), 27일 최대홍 목사 ‘심판을 경험한 가정’(행 5:1~11)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서빙고 이웃사랑팀, 홀몸 어르신 47가구와 식사교제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홀몸 어르신 47가구와 식사교제하며 외로움을 녹였다.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지난 4월 27일(일) ‘식사를 합시다’ 행사를 개최했다. 서빙고동, 보광동, 청파동, 효창동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47가구와 서빙고 이웃사랑팀 68명이 참여했다.

서빙고 이웃사랑팀은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서 지역상품권, 사랑의 상자 전

달, 식사 섬김, 집수리 등을 한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5월 4일(일), 기부받은 공기정화살균기 5대를 환경이 열악한 홀몸 어르신 5가정(반지하방에 사는 가정, 장애로 활동이 어려운 가정 등에 전달 및 설치한다.

문의: 010-9802-2395

와이 무슬림 참가자 모집

5월 10일부터 매주 토 오후 3시 양재 두란노홀

이슬람 역사를 배우고, 무슬림 선교 방법을 공부하는 이슬람 선교학교 ‘와이 무슬림’ 1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7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이슬람 선교학교 ‘와이 무슬림’ 14기에서는 김성운 교수 ‘이슬람 역사 문화와 신앙체계 발전과정’, 주누가 선교사 ‘이슬람의 예수 이

해’, 김요셉 목사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 김태완 목사 ‘무슬림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남경우 교수 ‘한국의 이슬람’, 김용산 목사 ‘무슬림에게 다가가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온누리M센터, 안디옥 열방교회 등 현장 체험도 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6302-3482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illegible]

소천 4/27(일) 브릿지33 고 김광섭 성도 4/27(일) 가정사역 박완재 성도, 박삼재 성도 모친상, 이소연 성도, 김지성 성도 시모상 고 이용희 4/28(월) 특별한초대 이미은 성도 모친상 고 백연옥 4/28(월) 강서 박군도 성도 부친상 고 박봉식 4/28(월) 강남B 기수정 집사 모친상 고 이규례 4/30(수) 송파B 이영혜 권사 모친상 고 황의순 4/30(수) 양재A 신현주 성도 시모상 고 김근복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민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차비,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와상 어르신) 내용: 이민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직책: 이민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까지 모집: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청결 봉사 신청: VMS 신청, 유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청장년 세대(청년, 외국인) 합창단 모집 기간: 2025년 11월까지 모집: 세대 교류 및 소통을 희망하는 청장년 세대(청년, 외국인) 내용: 합창 연습, 세대 간 교류 및 소통 신청: 유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종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재정 온누리교회협의회 온누리교회협의회의 헌금 매뉴에서 모바일헌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헌금온라인 안내 신입회원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말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갑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오선교회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사례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지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송),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말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레 주말만 가능(예약 필수)	결혼 · 광고 ■ 결혼 5월 10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이석재, 최경운의 아들 이정모(온누리교회) 맹호섭, 제인라의 딸 맹수현(온누리교회) 5월 10일 토요일 오후 2:00 양재 사랑홀 손본승, 임명란의 아들 손승권(스카고 주님의교회) 강성은, 김경현의 딸 감미선(온누리교회) ■ 광고 CMN 네발 아웃리치 의료진 모집 일정: 8월 1~5일 모집 분야: 피부과, 이비인후과, 외과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온누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모집: 온누리청소년문화의집과 자신의 성장에 관심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만 24세까지) 인원: 10~12명 활동: 2025년 5월~12월 장소: 온누리청소년센터 관내외 접수: 5월 10일(토) 까지 문의: 02-3215-3358
--	---	--	--	--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현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두란노 **45** 주년 기념



두란노

생명의 삶 표지 사진 공모전

공모 주제 “오늘, 예수 안에 살다”

「생명의 삶」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은혜를 사진에 담아 나누어 주세요.
(#일상 #삶 #묵상 #감사 #은혜 #감동)

2025.4.1^{TUE} – 6.30^{MON}

응모 대상 「생명의 삶」 독자 누구나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시상 내용

구분	인원	시상 내용
최우수상	1	상장 및 상금 200만 원 + 두플러스 1년 이용권
우수상	3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 두플러스 1년 이용권
가작	5	상장 및 상금 50만 원 + 두플러스 1년 이용권
입선	15	상장 및 상금 30만 원 + 두플러스 1년 이용권

*두플러스 스마트 플랜 1년 이용권(20만 원 상당)

두란노 창립 45주년 특별 이벤트

응모자 중 45명 추첨, 두플러스 1년 이용권 증정

응모 방법

QR코드로 온라인 접수

문의

durannoqt@duranno.com

